

유리ES, 인도네시아 석탄 상업생산 돌입

유리ES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역에서 석탄 시추작업을 마치고 10월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간다고 8월14일 발표했다.

상업생산에 들어가는 광구는 면적이 7600ha이며, 채굴이 가능한 매장량이 60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ES 관계자는 “노천광구이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열량도 kg당 6500kcal 이상으로 발전용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10월부터 인디아, 영국을 비롯한 해외 발전소 등에 월 10만톤 정도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08/14>